

#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기대할 만한가?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게임엔터팀은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지스타(G-STAR) 2025'에 법무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부스를 열고 참가했다. 필자는 지스타에서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을 직접 만나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적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이용과 저작권 등 침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문의를 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지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해당 개정안에 관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포함해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두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법률명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해 기존의 중독이나 사행성이 부각되던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명의 변경은 당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새 정부가 '게임'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천명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개별 사업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게임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 관련 진흥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부처 간 정책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진흥 기능은 산업 전략 수립·지원으로 집중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개정이라고 한다. 물론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변

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해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협회 등의 자율규제 및 국가의 자율규제 지원 관련 내용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디지털게임, 특정 장소형 게임의 등급 분류 주체와 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 협회나 업계 등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뤄질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무나 운영상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로 협회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적지 않게 반영한 것 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바른

## 12월의 선물 ‘성인모드 챗GPT’?



기자 수첩

김 서 현  
(IT부)

“성인 이용자를 성인(成人)으로 대우하겠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최근 엑스(X)를 통해 던진 화두는 매혹적인 '자유'의 선언처럼 들린다. 오픈AI는 오는 12월부터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표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이면에는 성장세 둔화에 직면한 빅테크의 노골적인 수익 추구와,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술이 가져올 파국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픈AI 전 제품안전팀장 스티븐 애들러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제기한 우려는 섬뜩하다. 그는 “AI가 소아성애와 폭력을

유도한 게 불과 4년 전”이라며, 기업들이 경쟁 압력에 굴복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챗봇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가 이용자의 망상을 강화하고, 성적·정서적 의존성을 기형적으로 심화시킨 결과다.

문제는 이 '위험한 자유'가 한국 사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10대들 사이에서는 '제타AI' 등 캐릭터 챗봇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 명의 휴대전화 인증 한 번이면 뚫리는 허술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성적 대화와 폭력적 상황극에 뛰어들다.

세계 각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챗봇 기업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고삐를 쥘다. 호주는 아예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안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SNS와 숏폼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작' 수준의 원론적 대책에 그쳤다. AI 대화는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돼 신고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율 규제는 이미 실패했다. 실존 인물 여부를 떠나 AI 생성물의 성적 악용을 처벌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제할 강력한 입법이 시급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안전판'이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8년생 주변의 도움말을 수용하는 것이 일하는데 이득이다. 60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2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84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한다.



소

37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49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61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73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8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나르지 마라.



호랑이

38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50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62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74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의 편이다. 86년생 마음을 바우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이.



토끼

39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51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63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이 어딘지. 87년생 배우자가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용

40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52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4년생 격한 안장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76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88년생 새로운 마음 기분을 전환을 위해 들뜬을 감는다.



뱀

41년생 투자 권유는 듣지 말 것. 53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도 좋다. 65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77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보도록. 89년생 인연을 만나려고 애쓰다가 피싱 걸릴 수 있음이니 조심.



말

42년생 집 밖은 전쟁터이니 이사는 신중하게. 54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66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8년생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하지말자. 90년생 양보하는 절을 따지고 물건을 구매해야.



고양이

43년생 마을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55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67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 남패 분다. 79년생 실력으로 자신을 격려하라. 91년생 생각은 많으니 지출이 생기니 움직이기가 어렵다.



원숭이

44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56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6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80년생 오늘의 불운은 어제의 교만이다. 92년생 부분적 결함이 있어도 다시 도전해야만 할 것.



닭

45년생 집 매매를 서두르지 말도록. 57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69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81년생 무리한 만남으로 큰 것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93년생 보살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하자.



돼지

46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58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70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82년생 하고 있는 일에는 선수가 있고 때가 있다. 94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도 튀어나오니 양보를.



돼지

47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59년생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71년생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8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해야. 95년생 친지로부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는다.



## 김상회의四季

보시와 풍수개운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보시라도 공덕이 있다고 한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베풀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인 것이다. 보시의 공덕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양녕대군의 자손 이야기로 반 그릇의 조 죽으로 운이 핀 얘기가. 양녕대군은 문제적 풍운아 같은 행동거지로 폐세자가 된다. 이후 계속되는 그의 풍류와 기행은 양녕대군에게 제공되던 녹도 아들 대에 가서는 끊어지게 만든다. 하인을 둘 처지도 안되어 곤궁하던 중 어느 날, 지나는 탁발승이 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했다.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 좀 남아 있는 조로 죽을 쑤어서 먹고 있던 참에 스님이 탁발을 청하니 민망해하며 반 남은 조 죽이라도 드시겠냐 하니 스님은 그러겠다며 조 죽 그릇을 비웠다.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앞마당에 서 있는 아름다리나무를 보더니 “이 나무를 당장 베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적선하고 갈 것은 이것뿐이요.”라 한다. 양녕의 아들은 기이하다 느끼면서도 나무를 베었다. 얼마 후 세조가 능묘 길을 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담 너머로 보이는 집채는 유서 있어 보이는데 추녀는 누추하고 뭔가 영화가 바래고 퇴색한 느낌에 세조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명하니, 자신의 큰 숙부인 양녕대군의 집이었고 이제는 아들이 당주였으나 녹봉도 없어 빈한한 가세를 집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세조는 우리는 사촌 간 아니냐며, 만약 숙부가 보위에 올랐다면 사촌이 왕이 될 수도 있었으니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며 그를 바로 아산 현감으로 임명했다 한다. 보시의 공덕은 기본이며, 풍수적으로도 집 안에 나무가 시야를 가리면 운을 막는다는 이치, 시야는 트이고 밝아야 하는 것이 양택 풍수의 기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98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902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영역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   |   |   | 6 |   |   |   | 5   |
|   |   |   | 7 | 4 |   |   |   |     |
| 4 |   |   |   |   | 1 |   |   | 3 8 |
|   | 2 | 1 | 5 |   |   |   |   | 7   |
| 9 |   |   |   |   |   |   |   | 1   |
| 8 |   |   |   |   |   | 4 | 9 | 5   |
| 6 | 4 |   |   | 5 |   |   |   | 3   |
|   |   |   |   |   | 2 | 1 |   |     |
| 1 |   |   |   | 8 |   |   |   |     |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란스도쿠110

중하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ㄲ | 6 | 9 | ㄴ | 8 | 9 | ㄷ | 8 | ㄹ |
| 9 | 8 | ㄹ | ㄷ | ㄲ | 8 | 9 | 6 | ㄴ |
| 8 | ㄴ | ㄴ | ㄹ | 9 | 6 | 8 | ㄲ | 9 |
| ㄴ | 9 | 6 | ㄲ | 8 | ㄹ | 9 | ㄴ | 8 |
| ㄹ | 9 | 8 | ㄴ | ㄴ | ㄲ | ㄲ | 9 | 6 |
| ㄴ | ㄲ | 8 | 9 | 6 | 9 | ㄹ | ㄴ | 8 |
| 8 | 8 | ㄴ | 9 | ㄹ | ㄴ | 6 | 9 | ㄲ |
| 6 | ㄹ | 9 | 8 | ㄴ | ㄲ | ㄲ | 8 | 9 |
| 9 | ㄴ | ㄲ | 6 | 9 | 8 | 8 | ㄹ | ㄴ |

|   |   |   |   |   |   |   |   |   |
|---|---|---|---|---|---|---|---|---|
| ㄲ | ㄹ | 9 | 6 | ㄴ | ㄴ | 8 | 9 | 8 |
| ㄴ | ㄴ | 8 | 9 | 8 | 9 | ㄲ | ㄹ | 6 |
| 9 | 6 | 8 | 8 | ㄹ | ㄲ | 9 | ㄴ | ㄴ |
| ㄹ | ㄲ | 8 | 9 | ㄲ | 6 | 8 | ㄴ | ㄴ |
| 8 | ㄴ | ㄴ | ㄹ | 9 | 8 | 8 | ㄲ | ㄲ |
| 6 | 9 | ㄴ | ㄹ | 9 | 8 | 8 | ㄲ | ㄲ |
| 8 | 8 | 6 | 9 | ㄴ | 9 | ㄲ | ㄲ | ㄹ |
| ㄴ | ㄴ | ㄹ | 8 | 8 | 9 | 9 | 6 | 9 |
| 9 | 9 | ㄲ | ㄴ | 6 | ㄹ | ㄴ | 8 | 8 |